



자들의 문을 니다.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스 또는 인터 으로 보내 주시오. 중 한타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어 답해 드 니다. 의 고 에 대해서도 상 해 드 니다. <글 : 자> 보 곳: 우 110-170 서 시 종로구 지동 110-33 현대불교신문사 ' 을 는 이 에게' 독자 인터 :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: (031)470-3116

길을 묻는 이에게



현대불교 제404호

서기 2003년 1월 15일 수요일 29

조

그대로 실하게 하루하루 하루살이로 살라

어 분하고 해에 또 마주하게 되입니다. 해를 이해서 더 한 . 삼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가 에 손을 고 내가 어 게 행하고 있는지, 어 게 말을 하고 있는지, 어 게 생각을 해서 리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 니다. 그 서 된 건 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 시오. 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 니다. 당시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 선이 국이었 . 그런데 중국에서 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 의인이 있나 없나를 알아 가 지고 오라고 사신을 많이 내려보 다고 니다. 그런데 를 타고 건 와야 하니 까 그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마중나가는 사람을 아서 내보내야 있 이 건 국인이 린 일이라 때에 따라서는 신 하지 않고는 안 되게 있거든요. 그 서 지금으로 면 시라면 시, 또는 군이면 군에서 어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, 이 무 고 아주 하고 이마을 공부에 정말이지 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. 아서 그 사람을 안 내자로 내보 는데 사신들이 을 건 자마자 으로 이나 더 니다. 그 서도 사장에 가지고 나 상을 놓고 서 을 차려 는데 그 사신이 거기서 부터 시 을 하시기 해요. 한 번 시 해 보고 자기한 하 없게 여 지는 사람 이라면 나라 전 를 그 하 없게 보게 든요. 아주 제일 중요한 자리 . 거기서 안내자로 나 사람이 시장도 하고 그 니 을 다섯 를 어 었 . 그런데 그 에서는 을 다 맡고 손가 을 세 를 들면서 아무 말 없이 무 언()의 문을 린지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은요, 그것이 지도 모르면서 '세 를 었는 ?' 하는 알고 '난 을 다섯 를 었다.' 하고 다섯 손가 을 내 었 말 니다. 하하하... 다섯 를 내미니까 그 에서는 '삼 오 을 그 통 구나!' 이 게 생각을 한 니다. 그 고선 가 이 해서 라면서 또 모모양을 그려 보이게 든요. 아, 그 니 ' 는 모 한 을 었는 ?' 이 게 는 알고 또 '동그 을 었다' 하고선 이 게 동그라미 모양을 그 말 니다. 하하하... 마나 재 는 니까? 그런데 그 게 한이 가 여 는 하면 여 분은 알는지 모르겠지만, 신으로 저 어나고 나중애 정신 의 ' 나 가, 리가 어나야 되는 거 . 그런데 이 사람은 어언 에 내면에서 리가 살 아난 거 요. 살아나서, 연히 우 진 어도 거기서 뜻을 일 준 거 말 니다. 그 게 고 은 로고 들려 서 일 준 거 말 니다. 그 니까 그 게 퍼 퍼 생각을 지. '아, 을 한 거 었는 는구나.' 그 고선 '동그 거 었다.' 그 고 ' 을 었는 ?' 하니까 '다섯 를 었다.' 이 게 한 거 .

지금 이런 기를 하는 하면 여 분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스스로서 아 지면 하게 만들려고 을 가는 거를 은 으로 들 수도 있다는 니다. '하게 들 수 있는 거니 까 안에서 내가 다스려서 모든 거를 전하게, 주장 자를 만들어놓는 그 자 의 주장자는 자기 몸을 이 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 고 가고 , 악업 선업이 모두 몸 속에 있는 그자 들이, 와이 나을 자동적 으로 읊이 된다'고 . 그 서 자기가 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읊이 서 용도 에 따라서 차 차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요. 그거는 퍼 하는 니다. 그런 모든 한마음으로서 구성을 해서 대기가 된 거는, 대기라는 것은 자기 몸 이를 이끌고 가는 니다.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게 하는 거 . 그 니 그 사람 도 그 게 을 은 로 마음을, 그 사람이 부이기 때문에 아주 모르거든요. 그 니까 그 게 말 니다. 그 게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아주 보지 하게 만들어 말 니다. 그 니 중국 사람들이 '야! 이 게 안내

하는 사람도 이 하니 저 안은 어 감히 말을 으 .' 하고는 러서 한 마 도 지 하고 고 돌아다니며 구경만 하 답니다. 그리고는 돌아가서 라고 그랬는 하면은, " 선에는 의인들이 많 아서 안내하는 사람까지 하 을 알고 을 알고, 삼 오 을 알고 아주 무분퐁지 더라."고 기를 하니까 을 차면서 하는 리가 '야! 그 나라를 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해. 그 니까 지 하겠구나.' 하더 니다. 그 뜻을 아 니까? 마음공부 하신 양 들, 상 법이라는 이 이 따르는 것은 평 공()에 우리가, 이 아니라는 기 . 생명도 이 아니고 모두가 이 아니게 돌아 다 하는 평 공에 고정 이 없이 돌아가니까, 그 서 평 공에서 나오는 법은, 말하자면 방 이 가 오면 칠 가 들어 다는 기 니다. 그 뜻을 아시겠 니까? 이 무궁무진한 법을 우 리는 몸 어지기 전에 알아서 행 할 수 있어야 되는 니다. 그 서 요만한 것 하나도 히 지 말고 히 행하지 말라고 하 는 니다. 업신여기지도 말고 말 니다. 어 두 구가 있었 니다. 날에도 기 니다. 만 두 구가 어느 때 을 가다가 석존께서 설법하시 는 게 되었 니다. 그런 데 한 구는 부처님의 말 이 사기라고 생각을 고, 또 한 구는 나라마다 전 왕들 을 모아 도저 게 이 하게 말 하실 거라고 하면서 무나 기 게 생각을 는데, 그 고 기 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설법의 뜻 을 아서 이런 도리를 모르는 나라에 가 서 좀 으면 하는 생각을 더 니다. 그랬는데 요, 사기라고 생각을 한 그 구는 그날 을 잔 고, 날에는 수 가 대 장으로 나가고 기 때문에 마차가 많 었 . 그런데 사기라 고 생각한 구는 을 고 가지 장에 나가는 마차에 여서 로 죽 고, 기 게 생각 던 구는 자기 구가 죽으니 으로 수가 없어서 건을 에 실어 가지고 나라로 더 니다. 이런 말은 하려고 하지도 않 는데 하니나 요. 그 게 가서는 큰 보따리는 어 다

더 니다. 그 고는 자 피하니 자 아 들어가요. 아 들어가서 주위에, 그 말을 아오는 사람들이 정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 . 아오면 그런 분 들이 '야, 여기 인군 퓌 퓌 있나보다.' 하고 하면서 사람을 도 고, 또 다른 사람을 도 또 고 하더니 그 보따리 낀 사람을 우니 그때서야 타 고 가게 만들거든요. 그 서 그 사람은 문도 모르고 그 말을 타고 들어 거 요. 그 서 인군이 되고, 그때에 석존의 설법 을 들으면서 생각을 던 것을 다시 생각 하 하면서 '야! 여기도 부처님

분한 어떠한 말 을 하는데 있어서 여 분이 알아들으면은 내가 다시 기 하려고 오 은 좀 들었 니다. 그 니까 를 들어서 말도 심해야 하고 남이 언 아할지 아할지를 미리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, 을을 이지도 않고 가정도 화복하게 이끌어 수가 있고, 어 든지 아주 효과가 만해 지 . 또는 우리가 살아나기려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는 일이 한두 건 니까? 한두 건이 아 니 . 에서나 안에서나, 애타고하나 마나, 잘나잘나 오는지, 또 어 때는 즐거움도 와요.

생각하지 마세요. 방 은 나 으나 같 니다.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부처님한테 만 할 알 지, 그 고 를 하고 이만 다가, 고 ()의 어리를 그 다가 어 고는 그거를 감해 라고, 우리 남 되고 우 리 지식 되고, 우리 일가 까지도 모 두 되게 해 라고 그 난설을 하는 거 . 그 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도 말 니다. 내가 상 기하 . 제 나무는 제 리를 믿어야 모든 에 지가 수 서 을 라 다고요. 그 고 또 가장구나 사 는 무엇을 으로 내려보내 는 하면은 양열과 공이나 어떠한 에 지도 다 아 로 내려보내고, 이 게 오트 내리 해야 가 저절로 돌아가 이, 이 저절로 돌아서 양식으로 을 수가 있 어서 르르게 살 수 있 이, 내 나무가 만 에 나무를 믿고 기도를 거기다 하면서 나무에서 에 지가 나올 알고, 도와 알고 고 기 도한다면, 상한 고 기 도한다면, 이 을 믿고 기도 하고 다면 거기서 에 지를 이리로 보내 까요? 아 니다. 드시 그 나무의 그 리만이 서로 상 하면서 서 로 이 을 다주고 공 을 다주는 니다. 그 니까 한마 로 말을 해서 여 분 마음, 속에 아 수 없는 생명들이 들 어있고 나무에는 이파리들이 아 수 없이 있 니다. 으로 보이게 사 들이, 향나무 같은 거는 아 수도 없어요. 아 수 없는 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들이 모 을 가지로 가지고 천차만별로 마나 많은 생명들 이 있 니까? 그것이 수 부터 진화되 고 어서 모 을 가지고 나 다 는 명서 니까, 명서, 내 몸이 로 명서 니다. 그 니어 안 믿을 수가 있 겠 니까? 그 서 내 몸을 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도 보이지 않는 다의 중 에 서있는 니다. 이게 중세 니다. 중 에서서 를 타고 가는 이 말 니다. 이 몸을 로 한번 생각해보 시오.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중생들이 잔 말 니다.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를 끌



을 모 다 설법을 게 해야겠 구나.' 해서 부처님을 모 다 설법을 고, 기 게 생각 던 구는 자기 구가 죽으니 기도 하고 말을 니다. '니까, 하하하. 그랬 이 우리가 마음을 야 된다 고 하는 거 요. 아까 정 스님이 세 가지 여건을 말 하 는데 하나 는, 아주

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 . 그런데 즐거움은 시 이고 어려운 일만 많이 . 그 니까 그런 어려움 과 즐거움을 다 두리 , 즐거움은 감사 하게 놓고, 어려움은 '한마음 속에서 나 오는 어려움이니까 어 지 않게 하는 것 도 에 있어.' 하고 되돌려서 은 로 대 해서 라고 하는 말을 수차례

즐거움은 감사하게 놓고

어려움은 되돌려 대 해서 라

놓고 그만한 보따리를 하나 어지 고 건을 팔 양으로 사방을 다 구경을 하 고 다니는데, 그 곳에서는 인군이 돌아가 서 다른 인군을 는데 어 게 된 일인 지 그나라는 국민이 인군을 는 게 아니 가 . 말이 금으로다가 을 해서 고선 사람이 게 나와서 인군을 는 그런 나 라에 .

그런데 양 으로 사람이 하게 들 어 는데 말이 오더 니다. 그런데 그 말이 어 게나 명한지 오더니만 그 를 들려서 보따리 낀 사람을 보는 데, 이 을 보고 저 을 보고 하더니 다시 고 가 이 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 에 낀 그 사람들, 자 사람들 비키게 하

서지 않는 정진력과, 말하자면은 실천력 과 화가 나도 내려놓는 (), 그거를 말 이 있는 게 아니라, 정신세 에 말하 자면 50%가 대두 있다 이 니다. 우리 문에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이지 가 . 아니까 돌아가 정신 와 가 아니게 같이 돌아가는니만 정 를 무시하지 말고 정신 로 돌아서 현실로, 현실 로 나오는 거니까요. 어차 피 그 게 돌아 나올 거라면 저 거기다 어서 돌아 나오게 만들어야 . 옹광로 에다 를 으니까 재생해서 로 나오지 않 니까? 연 도 부서진 거를 다 으면은 재생 서 로이 나 니다. 이런 리를 방 으로 현을 해서 안 지만 하 한 방 이라고 우 게

한마음의 무궁무진한 법

몸 어지기 전에 알고 행해야

을 니다. 아마, 그 니까 생 하는 것이 세 만 이 있는 게 아니라, 정신세 에 말하 자면 50%가 대두 있다 이 니다. 우리 가 살아나가는 데 정 동 이 같이 돌아 가 . 아니게 같이 돌아가는니만 정 를 무시하지 말고 정신 로 돌아서 현실로, 현실 로 나오는 거니까요. 어차 피 그 게 돌아 나올 거라면 저 거기다 어서 돌아 나오게 만들어야 . 옹광로 에다 를 으니까 재생해서 로 나오지 않 니까? 연 도 부서진 거를 다 으면은 재생 서 로이 나 니다. 이런 리를 방 으로 현을 해서 안 지만 하 한 방 이라고 우 게

고 가는데, 노를 고 가는데 안에서 이 저 하고 불 하면은 가 뒤 서 와 내가 다 죽 니다. 선장이 고 구고 할 것 없이 다 죽 니다. 안 그 니까? 그 니까 에 사람들은 이 끌고 가는 선장의 말을 고 선장은 그사 람들을 다스리면서,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마음으로 다스리면서 거기 서만이, 그 한구 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 구 에서만이 대 할 수 있다는 니다. 한구 에서 을 내보 으니까 한구 에 서 을 게 할 수 있다는 기 니다. 그 게 되는 까 이 무엇인가 하면, 우 리의 자동적인 터에 과거에 모든, 이 말을 자 니다. 자동적인 터에 자 기가 어 게 살 는 에 대해서 자동적

으로 력이 있거든요. 그 서 현실에 과 그 인연의 업식, 악업 선업이 부 이 가지고 부모의 몸을 어서 이 세상 에 나오거든요. 그 니 거기서 나오지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니다. 데서 오는 거라 하나도 없어요. 악업 선 업이 력된 대로 게 나올 수도 있고 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악으로 나올 수 도 있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 니 거기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수 없이 일이 안 되는 수도 있고 되는 수 도 있고, 해보려고 하면 하고, 좀 살아 보려고 하면은 금 모 다기도 금방 다 나가고 하는 문제들, 말로는 할 수 없이 건건이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있 . 그 서 그 게 건건이 생기는 그까 이 로 그 기 때문에 나오는 니다. 그 니 건 건이 들어오는 거마다 불 에다 놓으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 니다. 그런 거 와 같이 건건이 오는 대로 그 거기 어 어라, 그 면 타버린다. 건건이 는 대로 ' 만이 할 수 있어.' 하고 믿고 놓 아야지 버리라고 해서 놓으라는 게 아 니다. ' 가 이 게 나오게 으니까 안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아.' 하고 놓고, 상 에 따라서 또 ' 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가 모든 아야 하지 않아.' 하고 놓 고, '이것은 만이 이끌어 수 있어.' 하고 놓고, ' 만이 안을 화복하게 할 수 있어.' 하고 놓으라고 하는 니다. 그 한 건수가 마나 많 니까? 자식이 무엇을 다거나 자식이 서 어 로 잘 다거나, 또는 자 식이 이 들었더거나,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나가서 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 서 애로가 많은 들도 있고, 또 여 가 지 이 로 정신분열 이 생 서 식구들 이 다 그 에 는 들도 많고 이런데 그거를 어 게 대 를 해야 으 는 니다. 우리에게 지금 시 한게 그런 거 지 게 있 니까? 내 몸과 가 들과 이 런 거를 하나하나 하나 때에 로 내성 도 이루어지는 니다. 그 서 몸 속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제도가 서 보살로 화하게 되면, 이 세상에 주머니 공기주머니에서도 자 습하게 다 인 말 니다. 그 니안 하고 기겠 니까? 세 적으로도 지금 하고 교차 로에 서서 정신 로 아들이려고 무 애틀 고 들 있 니다. 정신 를 들어서 나오니까 의학 에서도 때에, 대 를 통해서 를 통해서 중 에서 정을 해 가지고 사대(로 통신이 되는 니다. 안 그 니까? 이것은 구나가 다, 그 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사나 의사들도 마음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는 라요. 안 한 사람은 그 사사건건 다 리게 되지만 자기가 마음공부를 하면 서 해 해 나가는 사람은 리지 않게 니다. 우리 절에도 산부인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, 하나도 림이 없이 해 해 나가기 때문에 그 게 많 턴 에 로사 이다 없어 다는 니다. 무 까 일까요, 그게? 대 가 되니 문제들이 모두 해 이 되는 거 . 그 고 같은 인데, 같은 화제인데 아주 감기가 어도, 가 나 감기라 해도, 화 제를 주어도 그 고 는 니다. 이 건 무 까 이 이 니다. 고순 을 주고 을 때 로 직속으로 통하거든요. 그 기 때 문에 로 는 니다. 그 니 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게나 생각해서서 안 니다. 보이지 않는 데가 더 무섭다는 알아야 니다. 보이지 않 는 데가 법이라는 아 야 니다. 우리가 그 아무 게나 살아서는 안 니다. 내가 법사스님을 다 이 모시 는 하면은, 나는 위에서부터 그 내리 그 뜻을 나 거든요. 차차 야 서부 터 올라가면서 운 게 아 니다. 그 니 현시 에서 사 의 적인 것이나 의와 그런 것을, '내가 시나 모르면 대

☞ 29 2012 1월 15일

해 주 사' 하고 다 이모 락거 . 그 서 여 분이 세 와 정신세 , 법사스님이 말 하시는 거와 내가 말하는 게 이 아니라는 거,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 것이 전부 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정신 에서 나오는 거니까, 우리가 가정 이다 동 이다 하고 을 놓고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다 이 수가 없다는 니다.

그 이 정신 와 는 동일하게 같이 지금 찰나찰나 고정 이 없이 들고 있거든요. 그런데 나로서는 좀 부 하든 지 부 하지 않든지 에 내가 을 다해서 자세히 한다고 해도 자세히 할 말 이 있 니다. 여 분이 을 고 가 떠 야 내가 자세히 안 해도, 껌만 들어 도 '저건 무 리다.' 하고 알게 있 니다. 말이 을 해도 그게 무 린지 알게 있고요. 가 어도 그게 무 린지 알게 있어 요. 이 들 들 어도 알 수 있구요. 도 살아있거든요. 말을 하고 있다가요. 그런 거 보 니까? 아 예 해가 을 때는 이 기지 를 다가져 나절 이 되면 하나하나 오 라드는 거요. 그런데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 니까?

전에 산에 다니면서 보면요, 도 사 람의 적이 뭇 다 하면 받아들여요. 그 니까 사람의 적을 받아들인 것 만 아니라, 모든 가 오면은 받아들여 서 그 삼키고 말 . 데기만 남아요. 그런데 어 것을 업신여 수 있겠 니 까? 그 니까 내가 처음에 으니까 모든 보고는 고 알게 되니까 모두가 다 스 승이지 어 업신여 만한 가 있 니까? 둘 하나가 가는 것을 보고서 하하하 고 '그 둘이 어리처럼 가 .' 하고 기도 니다. 또는 이 때에 돌이 있으면 돌아 갑 니다. 그것이 다 말없이 가르 주는 중 한 스승 니다. 전부가 다들 내려다보 시요. 다가 여 게 한다고 말이 없어 도 수많은 기가 다 그러로 들어 갑니다. 비가 아지면 이 들어

가고, 도 들어가고, 악 가나 는 도 들어가고, 구정 도 들어 가고, 더 운 한 할 것 없이 오만 게 다 들어가도 그 여여하게 아무 말 없이 아들이고 있어요. 아들 다 하면은 그 적은 없어지 . 그 니



현대불교 1천원 범보시운동에 동 시다
"현대불교"는 우리의 중한 이 인 군 부대, 경찰서, 교도 , 원, 지시실 에 '현대불교 보내기 운동'을 전 하고 있 니다.
범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안에 게도 무 한 공 이 은 뿐 우리 사 를 한 고 따뜻하게 하는 씨 이 니다.
부처님께서도 < 운 경>에서 "보시 의 공 은 이루 아 수 없다. 경전의 가르 을 보시하면 큰 지 를 계 된 다."고 하 니다.
현대불교신문사

이 통하고 통신과 통신이 통하고, 말과 말이 통하면서 일 만 이다 서로 없이 전 하고 들어가는 그자 가 로 교() 니다. 그리고 스님들이 머리 를 는 아 니까? 나오면 아버리 고 나오면 아버리는 원인이 어 있을 까요?
모두 살아나가는 게 찰나찰나 고 회해서 나 니, 지나 것도 없고 으로 다가올 것도 없고 그대로 원한 오 인 것 니다. 그런데 오 도 공() 으니 세 월과 월을 을 요가 없다는 거 .그 서 그대로 살하게 하루하루 하루살이 로 살라고 부처님께서 말 하신 니다. 그 니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부 리한

무명 틀 다 아버리면 또 나는 것이 정 상이 . 아버린다고 해서 아 안 난다 면 정상이 아니 .나면 고, 나오면 또 고 우리가 한 발 고 또 고, 한 발 고 또 고, 고 또 고, 고 또 고 이 니 없이 이어지는 거와 같은 니다. 이게 불교 니다.

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만사가 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게 그 불 교 요. 그 니까 불교 안에 종교가 있는 거지 불교가 따로 별적으 로 있는 게 아 니다. 내가 어 는 국지원에 나가서 사람 들을 만 을 때도 그랬 니 다만, " 아하지 말어, 가 이나 기 교가 다 따로따 로 있다고 하지만 모두 불교 안에 있는 거다. 불교 안에서 상 하나 이 으로 놓고는, 내 상을 저 으로 하나 놓 고 하는 거나 같다. 그 게 한 다면 무 하고 지구 안에 있는 동 들과 전 면은 생 들이 다 살고 있는 데 지구 안에서 요리로 피하면 하고 리로 피하면 하 ."하고 기를 한 적도 있 니다.
그리고 공동 지에 가보니 대통 에 이나 이나 상 불이 일 어나도록 만들어 는 데 그 불 뜻을 아는 고 니다.
세 전 우주 전 가 불 가 아 수 없 이 있다. 그런데 불이 이 ? 생 명이 이 ?모 은 다 다들지 언정 어 생명 이 이겠는 하고 기하니까 고 를 끄 거리고 그 다고 하더군요. 같이 모 여서 그 게 기하다보니까 재미있대 요. 아, 그 사람 들이 다 가 이나 기 교인이거든요. 하하하. 어느 스님이 들 어 다 내 다고 하면서 나도 내 까 처음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 더 라구요, 우리 신도들이, 자기들이 을 해놓고는 금이라도 하면 그 내 는대요.
그 거나 말거나 가서 보니까 당에 사람들이 는데 들어가서 고

기 . . 그랬더니 잡 에 다가 고찰 을 해 가지고 이런 들통 으로 하나 하고요, 를 해서 들고 노비 까지 가지고 어요. 아찌지 않구요. 그 서 을 가르지 않고, 또 진리가 이 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 때문에 니다. 그 도그 말 를 알아 고 그 게 해주시는 그 마음도 역시 동일 하구요. 기 교니 가 교니 그런 것 도 없이 아주 평화스럽고 었 니다.

어떠한 거든지 오는 대로 대 해서 놓고 잡지 말아야

여 분, 여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 . 우리가 공부할 안 하면 안 되는 까 을 아시리라고 믿 니다. 정말 니다. 나는요, 어 때는요, 아 !내가 다른 데 는 하나도 그런 는 지 하는데요. 그 아무것도 모르고 어놓고 이 게 하 는 때는, 언제나 '그 노랑도 상 틀 서 내 군 되는 .'하는 으로 '언제나

어 것도 히 지 말고 히 행하지 말라

서 진 자 스럽게 저 안이 살 수 있을까?' 하는 생각에 이 돌 때 가 많아요. 그런데 내가 그 면서도 ' ! 날더 하라고 예 나?' 이 면서도 그게 아니지 않 니까? 자기의 은 대로 고 는 이해야 . 하든 하든 말 니다. 자기의 할 일은 자 기가 해야 . 그 다고 어놓고 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진실하고 거 없이 이 세상 진리가 아주 거 없이 선업이면 선업대 로 피할 이 없고, 악업은 악업대로 피할

이 없어요. 그런데 선과 악을 다 놓고 평 화스런 자 인이 라 하는데 들 다 고하겠 니까? 이 가지로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가지고 마음대로 할 것 인데 하겠느 이 니다. 그럼 문 을 쟁 니다. 하나하나 말 해주세요.

문자: 해 많이 으 시요. 스님: 많이 을 것도 없고 안 을 것도 없고, 오는 대로 그 사는 거 . . 문자: 스님께서는 상 고구정 저 들을 이끌어주시고 니다마는 아 적도 저 들은 미 에서 어나지를 하고 있 니다. 오 도 그 서 가지 궁 급한 에 대해서 좀 여쭙고 니다. 저, 신선을 보 는 고 었더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신선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 니다. 부자는 세상에 연연해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세 상을 어하니 신선의 세 에 사는 사람 은 로 어 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니다. 사람들 중에는 이 이야기처럼 세상 이 어서, 이런 세상에 이런 모 으로

어 을까를 고민하기도 하 고, 궁급해하기도 하고 은 시 괴로 하기도 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모 으로 살게 되는, 또 그것 때 문에 괴로 하는 인연에 대 해서 한 말 부 드 니다. 스님: 그것이 그런 말이 아 니다. 하면 어려 운 사람은 부자를 건 다 수가 없으니까 기하는 거 . 기해서야 신선이 될 수 있겠 니 까? 그 니까 른 게 말해서 신선이라 는 것은, 이 도리를 다 알아서 내가 손 들고 와서 손 들고 가는 도리를 알고 내가 어 서 는지 어 로 가는지도 도 리를 안다면 그 중 에 일어나는 모든 일 들을 다 아실 니다. 아마, 그 기 때문 에 신선이예요. 그 니 내가 상 기하 . 가는 거 잡지

말고 오는 거 지 말라구요. 어 떠한 거든지 오 는 대로 모든 것 을 대 해서 놓 고 잡지 말 아라 이 니다. 그리고 또 나한

다가오지 않은 거를 가지고 심을 부 리지 말라는 말을 상하 . 그 니까 신 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마음공부를 하고 가시는 여 분이 신선 니다. 가난하든 부자든 룬해 놓고 말 니다.

(다음 호에 속 니다.)
위 법문은 1994년 1월 2일 법 제법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 니다. 한마음선원 이지 (www.hanmaum.org)나 한마음선원)에 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 니다.